

少陽人 中消症(糖尿病)에 忍冬藤地骨皮湯을 投與한 證例

조훈석 · 진수형 · 설유경 · 최미옥 · 김종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Abstract

A Clinical study about the Soyangin Jungso(Diabetes Mellitus) Patient Administration of Indongdeungjokolpi-tang

Jo Hoon-Seuk, Jeon Soo-Hyung, Seul Yu-Kyung, Choi Mee-Ok, Kim Jong-Won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ministration of Indongdeungjokolpi-tang on the Soyangin Jungso(中消).

2. Methods

To heal the Soyangin Jungso, we used Indongdeungjokolpi-tang(忍冬藤地骨皮湯).

3. Results

Jungso of a Soyangin patient responded well to the treatment with Indongdeungjokolpi-tang.

4. Conclusions

This case-study shows an efficient results by using Indongdeungjokolpi-tang in treatment of Soyangin Jungso(Diabetes Mellitus).

key words : Soyangin, Sogal, Jungso, Indongdeungjokolpi-tang, Diabetes Mellitus

I. 緒 論

高血壓 과 더불어 현대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만성 성인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糖尿는 한의학의 消渴과 症狀상 유사한 부분이 많다^{1,5}. 특히 渴而多飲, 消穀善飢, 小便頻數 등의 消渴의 주요증상은 서양의학의 糖尿病에서 말하는 三多症狀(多食, 多飲, 多尿)과 유사하며 만성으로 진행할 경우 동반되는 合併症이 消渴轉變症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⁶.

하지만, 症狀을 볼 때 虛勞 또한 糖尿의 증상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消渴 또한 반드시 요당이나 혈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糖尿와 消渴을 동일한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⁷.

기존 증치의학에서는 대개 消渴을 三消로 분류하여 上消는 渴而多飲, 中消는 消穀善飢, 飲食常倍, 身體瘦羸, 下消는 渴而尿數有膏油¹로 분류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서 동무는 消渴病에 관하여 太陰人은 飲一溲二하는 肺消 증상을 위주로 燥熱證이라 하였고 少陰人은 食消證이라 하였으며 유독 少陽人에 한해서만 消渴病이라하여 上消, 中消, 下消로 구분하였다⁸. 李⁹는 少陽人의 消渴의 원인이 性情의 偏急으로 인하여 마음이 寬遠闊達하지 못하고 陋固膠小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각 단계에 따른 처방으로 上消는 涼膈散火湯, 中消는 忍冬藤地骨皮湯, 下消는 熟地黃苦蔘湯을 제시하였다.

忍冬藤地骨皮湯은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胃受

• 접수일 2005년 2월 19일; 승인일 2005년 4월 2일

• 교신저자 : 김종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동의의료원 사상체질의학과

Tel: +82-51-850-8640 FAX: +82-51-867-5162

E-mail: jwonkim@demc.or.kr

熱裏熱病」新定 처방에 忍冬藤과 地骨皮를 중심으로 黃連 黃柏 玄參 苦參 生地黃 知母 山梔子 金銀花 등의 清熱之劑와 山茱萸 枸杞子 覆盆子 등의 補陰補精의 藥물이 배합되며 散風大清胸膈하는 荊芥 防風으로 구성되어 消穀善飢 善食而瘦 하는 少陽人 中消症의 처방으로 소개되어있다¹⁰.

本院에 洋方에서 糖尿를 진단받고 韓方에 내원한 中消症의 증상을 보이는 少陽人환자가 있었다. 이에 四象醫學의 관점에 따라 忍冬藤地骨皮湯을 투여하여, 양호한 성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證 例

1. 患者
신OO (남자/50세)
2. 診斷
少陽人 胃受熱裏熱病 中消症
虛勞
糖尿病
3. 主訴症 및 此症
 - i) 主訴症 : 消穀善飢, 善食而瘦, 全身無氣力, 眩暈, 足痺 皮膚 發疹 및 癢痺感
 - ii) 此症 : 渴而多飲, 小便頻數 및 殘尿感, 疲勞感
4. 發病
2003년 11월경
5. 家族歷
父 - 糖尿
6. 過去歷
帶狀疱疹 - 2001.12월경 10일간 양방 입원치료
7. 社會歷
음주(-) 흡연(-)
8. 治療其間
2004. 3. 2 부터 2004. 4. 27
9. 現病歷
술, 담배 안하는 50세의 남자환자로 평소 버스 운전 기사로서 야간근무 및 식사시간이 일정치 않은 등의 무리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본원 내원하

기 4개월 전부터 皮膚 發疹 및 癢痺感으로 洋方 皮膚科 내원하여 糖尿진단 및 皮膚치료 받아오다가 消穀善飢, 善食而瘦(3개월간 5Kg가량 체중감소), 全身無氣力, 眩暈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한방으로 糖尿病 및 증상 개선 위해 외래로 내원함.

10. 초기 임상검사 소견

- 1) CBC : Normal
- 2) LFT : ALP 41(low)
- 3) Glucose(FBS) : 461(high)
- 4) U.A : U.Glu +++++2000

Table 1. LAB

날짜	BST	Blood Glucose	HbA1c	U.Glu
3/2	423	461 (FBS)	10.7	++++ 2000
3/16	323			
3/22	265			
3/29	295			
4/17	224	220 (Random)	10.5	+++ 1000

11. 初診時 素症 所見

- 1) 寒熱 : 가끔씩 手足 熱感 느낌
- 2) 汗 : 별로 없는 편
- 3) 渴 : 발병 후 자주 口渴을 느껴 多飲하는편
- 4) 飮食 : 발병 후 자주 虛飢가 지며 多食하게됨
- 5) 大便 : 1일 2회 정도 굳은 변
- 6) 小便 : 1시간 1회 정도 잔뇨감이 남아 불편감을 느끼며 텅큰한 냄새의 황색 소변.

12. 체질진단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四象體質醫學科 교수 및 전공수련의가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을 바탕으로 診斷하여 體質處方을 투여한 후 病證藥理 경과를 보아 確診함.

少陽人 胃受熱裏熱病 中消症으로 진단.

1) 體形氣像

- i) 키 170cm 몸무게 63kg
- ii) 5부위 체간 측정
28-28-28-25.5-26 (각 단위cm)
- iii) 다른편으로 복부비만은 없으며 어깨부위가 골반부위에 비해 건실함.

2) 容貌詞氣 : 얼굴은 가름한 편이며 관골 코 턱부위가 뾰족한 형태로 각이진편이며 눈빛은 날카로운 편이며 성량은 고음부이며 말투는 급한 편. 걸음이 빠른편이며 어깨를 흔듦.

3) 性質材幹 : 성격이 직선적이고 급함 평소 다른 모르는 사람과 교우를 잘함.

언짢은 일이 있으면 火를 잘 내다가도 잘 잊어버리는 편이라 함

4) 病證藥理 : 평소 변이 굳은편이고 手足의 熱感이 있는 편이며 발병 후 消穀善飢, 善食而瘦, 口渴, 小便頻數등의 熱證이 있었으며, 忍冬藤地骨皮湯 투여 후 素症 및 病症이 별다른 부작용 없이 호전됨.

13. 針治療 및 療法.

最新耳鍼圖解處方集¹¹의 血糖下降 부위인 神門, 藤, 肝, 內分泌 穴位에 皮內針을 시술함 내원 때마다 좌우 교대로 시행하여 지속적인 보조요법으로 시술함.

14. 투여처방 및 투여방법

1) 忍冬藤地骨皮湯: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의 정선된 약제로서 『東醫壽世保元』에 제시된 忍冬藤地骨皮湯을 1돈을 4g단위로 환산하여 탕제함.

2) 獨活地黃湯⁹ 엑기스 : 한국신약 1포당 10g

Table 2. Prescription of Indongdeungjigkolpi-tang

Herbal Name	Scientific Name	Weight(g)
忍冬藤	<i>Lonicera folium</i>	16
地骨皮	<i>Lycii Radicis Cortex</i>	8
山茱萸	<i>Cassiae Cortex</i>	8
黃連	<i>Coptidis Rhizoma</i>	4
黃柏	<i>Phellodendri Cortex</i>	4
玄蔘	<i>Scrophulariae Radix</i>	4
苦蔘	<i>Sophorae Radix</i>	4
生地黃	<i>Rehmanniae Radix Cruda</i>	4
知母	<i>Anemarrhenae Rhizoma</i>	4
梔子	<i>Gardeniae Fructus</i>	4
枸杞子	<i>Lycii Fructus</i>	4
覆盆子	<i>Rubi Fructus</i>	4
荊芥	<i>Schizonepetae Herba</i>	4
防風	<i>Saposhnikoviae Radix</i>	4
金銀花	<i>Lonicerae Flos</i>	4
Total amount		80

忍冬藤地骨皮湯 을 2첩을 3팩으로 추출하여 1일

3회씩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煎湯의 방법은 한약추출기를 사용하여 忍冬藤地骨皮湯 10첩을 기준으로 3000cc 가량의 물에 150분을 가열하여 15 팩으로 추출하여 냉장보관 하다가 상온에 복용하도록 하였다.

초진시부터 3월 28일까지는 獨活地黃湯 엑기스 제제를 1일 3회씩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2일간 복용한 후, 5일간 忍冬藤地骨皮湯 을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3월 29일 부터는 忍冬藤地骨皮湯 만을 지속 복용하게 하였다.

15. 치료경과

2003년 11월 경부터 皮膚發疹 및 癢痒感으로 양방 皮膚과에서 糖尿진단 및 皮膚 치료 받아오다가 별다른 호전이 없어서 2004년 3월 2일 消穀善飢, 善食而瘦, 全身無氣力, 眩暈, 足痺, 皮膚 發疹 및 癢痒感의 主症과 渴而多飲, 小便頻數 및 殘尿感, 疲勞感의 차증으로 내원하였다.

체질검사 결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 中消症으로 진단하고 獨活地黃湯 엑기스 2일간 복용후 忍冬藤地骨皮湯 5일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2004년 3월 9일에는 투여한 처방에 대한 당장 뚜렷한 증상호전은 없었다.

消穀善飢 및 善食而瘦의 증으로 식후에도 금방 허기가 지고 최근 3개월간 5Kg 가량 체중감소가 있었고, 眩暈의 양상은 보행 시 땅이 꺼지는 느낌을 받으며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환자는 버스운전기사로서 5년간 1주일에 1회씩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하여도 체력에 문제가 없었지만 발병 후 휴직을 할 정도의 극심한 全身無力感에 시달렸다. 足痺의 증상은 주로 낮에 안거나 서 있을 때 발가락 주위로 저린 느낌을 호소하였다. 皮膚증상은 팔꿈치, 무릎 및 발목중심의 관절부위에 좁쌀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었으며, 癢痒感이 심하여 괴로운 상태였다. 소변은 頻數하여 1시간 1회 정도를 보고도 잔뇨감이 있었으며 소변의 상태는 덜컹한 향이 나는 황색이었다.

투여처방에 대한 寒熱, 汗, 渴, 飮食, 大便, 小便 등에 대한 생리반응에 대한 부작용도 없었으므로 裏證으로서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獨活地黃湯 엑기스 2일 복용 후 忍冬藤地骨皮湯 5일을 복용하면서 경과관찰

하였다.

2004년 3월 16일 消穀善飢, 眩暈 및 無氣力感은 큰 변화는 아니지만 환자의 자각 상태상 식후 덜 허기지고 땅이 꺼지는 어지러움이 덜하며, 처방 복용 후 무기력감이 덜하여 호전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소변은 1시간 1회이던 것이 1-2시간 정도 1회로서 빈삭한 정도는 객관적으로 감소하였다. 낮에 발가락 위주로 저린 足痺의 증상은 상태변화가 없었으며 皮膚의 發疹 정도는 변화 없었지만, 癢痒感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호소하였다. 재차 獨活地黃湯 엑기스 2일 복용 후 忍冬藤地骨皮湯 5일분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2004년 3월 22일 口渴증상이 호전되어 지속적으로 飲水하던 습관이 1-2시간에 한잔 정도의 飲水로도 不便感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消穀善飢, 眩暈 및 無氣力感은 자각적으로 지속적인 호전감을 보였으며 皮膚의 증상은 癢痒感이 현저히 줄어들고 붉은 색의 홍반이 퇴색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獨活地黃湯 엑기스 2일 복용 후 忍冬藤地骨皮湯 5일분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2004년 3월 29일 口渴, 多飢, 消穀善飢의 증상이 호전되어 식후 허기감이나 口渴로 인한 음수량에 대하여는 불편감이 없어졌으며 眩暈 및 全身無氣力의 증상도 호전되어 땅이 꺼지는 듯한 어지러움과 사지의 기력이 빠져 축 늘어지는 증상이 없어졌다. 足痺의 증상은 호전이 시작되어 낮에 발가락 부위의 저린감이 다소 감소하였다. 小便頻數의 증도 개선이 되어 2-3시간 이상에 간격에 1회 정도로 불편감이 감하였다. 皮膚는 癢痒感이 거의 없어지고 붉은 기운만 남아있었다. 少陽人 中消症은 大腸局의 清陽 上升之氣가 胃局에 充足되지 못하여 생기는 病人데, 忍冬藤地骨皮湯으로 病因인 裏熱이 제거되며 藥力이 皮膚에까지 두루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忍冬藤地骨皮湯 만 1일 2첩 3팩으로 지속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2004년 4월 17일 消穀善飢, 善食而瘦, 全身無氣力, 眩暈, 足痺, 皮膚 發疹 및 癢痒感의 주증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식후 공복감 및 口渴로 인한 불편감이 없어졌으며, 皮膚의 發疹 및 癢痒感과 발가락 저림의 증상은 소실되었다. 다시 버스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꺼질 것 같은 眩暈과 全身

無氣力증이 호전되었다. 다만 此症의 小便頻數은 2-3시간 1회 정도의 소변을 보는데 약간의 잔뇨감이 다소 지속되었고, 심리적 피로감은 여전하였다. 너무 집에서 쉬기만 한다면 오히려 逸傷이 올수 있다 판단하여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하면서 氣血循環을 시켜주면서 심리적 기분전환을 할 수 있도록 권하였다. 忍冬藤地骨皮湯을 지속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2004년 4월 22일 심리적 피로감은 다소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여전히 소실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소변은 잔뇨감은 호전 되었지만 2-3시간 1회 정도로 약간 불편감이 있었다. 하지만 주증의 消穀善飢, 善食而瘦, 全身無氣力, 眩暈, 足痺, 皮膚 發疹 및 癢痒感은 소실되었으며 재발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재발방지 및 후유증 관리를 위해 경과관찰하면서 忍冬藤地骨皮湯 만을 지속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2004년 4월 27일 소변의 잔뇨감이 가끔씩만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고 다른 증상의 재발 징후는 없었다. 심리적 피로감은 여전하여 과로하거나 야간에 작업 시에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내원 시 처음 호소한 主訴症인 消穀善飢, 善食而瘦, 全身無氣力, 眩暈, 足痺, 皮膚 發疹 및 癢痒感 등의 증상이 소실된 상태이므로, 재발방지 및 후유증관리를 위해 忍冬藤地骨皮湯 5일분만 사용하도록 처방하였다.

少陽人 中消症은 직접적인 원인은 大腸局의 清陽 上升之氣가 胃局에 充足되지 못하는 險證이다. 하지만 보다 큰 관점에서 보면 少陽人 胃受熱裏熱病의 消渴은 마음이 寬遠闊達하지 못하고 陋固膠小하므로 생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약물보다는 환자의 性情을 관리하여 哀怒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근본적인 豫防策임을 생각하여, 이후는 性情관리와 食餌 및 生活습관을 통해 性情의 偏急을 줄여 스스로 재발방지 및 후유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Ⅲ. 考察 및 結論

李⁹⁾에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胃受熱裏熱病」에서 少陽人 消渴은 “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

Table 3. Clinical Change

날짜	처방	主訴症					此證			
		消穀善飢	全身無力	眩暈	足痺	皮膚發疹	癢痒感	小便頻數	疲勞感	
3/2	獨活地黃湯 Ex 2日後 忍冬藤地骨皮湯	+++	+++	+++	++	+++	+++	+++	++	
3/9	獨活地黃湯 Ex 2日後 忍冬藤地骨皮湯	+++	+++	+++	++	+++	+++	+++	++	
3/16	獨活地黃湯 Ex 2日後 忍冬藤地骨皮湯	++	++	++	++	+++	++	++	++	
3/22	獨活地黃湯 2日後 忍冬藤地骨皮湯	++	++	++	++	++	+	++	++	
3/29	忍冬藤地骨皮湯	+	+	+	+	+	-	+	++	
4/17	忍冬藤地骨皮湯	-	-	-	-	-	-	+	+	
4/22	忍冬藤地骨皮湯	-	-	-	-	-	-	+	+	
4/27	忍冬藤地骨皮湯	-	-	-	-	-	-	+	+	

참조) +++: Sever ++: Moderate +: Mild -: Elimination 獨活地黃湯 Ex :독활지황탕 엑기스 제제

而 陋固膠小 所見者 淺 所欲者 速 計策鶻突 意思艱乏則 大腸清陽 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而 生此病也. 胃局清陽 上升而 不快足於頭面四肢則 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而 不快足於胃局則 成中消病 上消 自爲重證而 中消 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險證而 下消 倍險於中消"라 하여, 上消에는 涼膈散火湯 中消에는 忍冬藤地骨皮湯 下消에는 熟地黃苦參湯이 소개되어 있다.

忍冬藤地骨皮湯은 기존의 中消의 증상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었지만 處方名과 方劑構成을 볼때 기존의 처방에 근거하지 않은 李濟馬의 독창적인 처방으로 볼 수 있다¹⁰.

忍冬藤은 危亦林的 『得效方』에서 消渴의 合併症인 癰疽를 치료하기 위해 구성된 약제이며 地骨皮는 瀉腎火하며 開腎之胃氣消食進食하는 效能이 있다. 여기에 少陽人의 裏熱을 清熱하는 黃連, 黃柏, 玄參, 苦參, 生地黃, 知母, 山梔子, 金銀花의 약제와 補陰補精하는 약제로 山茱萸, 枸杞子, 覆盆子가 加味되어 있으며 荊芥, 防風으로 散風大清胸膈의 效를 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中消症은 上消 下消와 더불어 독립적인 증후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少陽人의 裏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上消에서 下消의 轉變과정에 病이 深化되는 상태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上消의 涼膈散火湯과 下消 및 陰虛午熱證의 熟地黃苦參湯, 十二味地黃湯의 轉變과

정에 대응하는 處方으로 上消와 下消에 대한 두 처방을 절묘히 함방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¹⁰.

현재까지 四象醫學에서 忍冬藤地骨皮湯에 대하여 崔¹²는 alloxan투여 白鼠에 대하여 高血糖 및 糖尿에 동반되는 高脂血症의 개선에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高¹³는 streptozotocin을 투여한 高혈당 白鼠을 대상으로 血糖降下機能을 입증하였다.

徐¹⁴는 忍冬藤地骨皮湯이 鎮痛 및 抗炎작용으로 中消合併症의 炎症억제에 효과가 있으며 腸管運動을 억제하는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鄭¹⁵은 少陽人 糖尿환자중 消穀善飢 飲食倍常 善食而瘦하는 中消症을 主訴로 하는 9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식후 허기짐 및 체중저하의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되며 병리검사상 평균 HbA1c, 혈압, total protein 수치가 낮아지며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혈당이 저하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小便頻數 및 自汗 또한 다소 호전된다고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上中下消를 분류할 때 中消의 중요한 증상인 食後에 곧 虛飢가 지며, 수척해지고, 四肢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기존 證治醫學에서 中焦의 증상으로 보는데, 四象醫學⁸에서도 胃局의 清陽이 上昇하는데 頭面四肢에 充足되지 못하면 上消가 되며, 大腸局의 清陽이 上昇하는데 胃局에 充足되지 못하면 中消症이 생긴다고 하였다. 忍冬藤地骨

皮湯 투여 2주후부터 消穀善飢 全身無力 및 眩暈의 증상이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본 처방이 胃局 및 大腸局의 清陽 上昇之力을 향상시켜 頭部 眩暈을 해소하며 中消의 원인이 되는 少陽人 胃受熱裏熱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胃受熱裏熱病을 앓고 있는 少陽人의 경우에 皮膚의 發疹과 癢痒感은 熱邪가 裏陰이 降氣되는 과정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裏에 응축되어 있다가 表에 표출된 것인데, 皮膚의 癢痒感은 투여 3주째부터 호전감을 보이다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소실되었고, 발진은 한 달 후 부터 호전되었다 忍冬藤은 危亦林¹⁶의 『得效方』에서 消渴의 合併症인 癰疽를 치료하는 약물로 소개되었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되었듯 忍冬藤地骨皮湯은 中消症의 양상을 보이는 少陽人 皮膚의 糖尿合併症 및 癰疽에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小便頻數은 上中下消에 모두 동반되는 증상이지만, 三焦로 분류하면 下焦 문제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李⁹도 倍險於中消라 하여 消渴이 가장 심화된 단계로 보았다. 小便頻數의 증상은 치료 한 달 후에는 호전을 보이긴 하였으나, 증상이 소실되지 않고,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의 불편감이 때로 있기도 하다가 때로는 경감되기도 하였다. 소변의 상태가 덜큰한 냄새의 황색이며 잔뇨감을 동반한 數한 상태였지만, 탁하거나 膏油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中消의 증상을 위주로 호소하여 熟地黃苦參湯 등의 下消 處方을 用하지 아니하였지만, 中消 처방으로 치료를 한 이후에 소변 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下消의 處方을 사용하는 등의 증상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四肢의 기운이 빠지며 작업을 못 할 정도로 全身의 힘이 없어지는 全身無力症과 달리 환자의 心理的 疲勞感은 처음부터 심하지 않았지만, 약 2개월간 치료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 하였다.

李⁹의 『東醫壽世保元』에 따르면 消渴은 “마음 씹 씹이가 너그럽고 넓지 못하고, 고루하며, 작은 것에 집착하고, 보고 생각하는 바는 깊이 보지 못하고, 언고자하는 것은 급하며, 계책은 분명치 않고, 뜻과 생각은 정해짐이 없이 구차하여, 大腸 清陽 上升之氣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充足 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病이 생긴 것이다.”고 하였고, 上中下消의 處方을 제시한 후 “아울러 마음을 너그럽고 넓게 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너그럽고 넓으면 바라는 바가 완만해져 清陽이 위로 올라가고, 頭面四肢에 充足하게 되는데 이것은 元氣이며 清陽이다.”¹⁷ 라고 하여 치료를 위해서는 處方을 쓰면서도 근본은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四象醫學은 四象構造의 本體論的 인식으로 人間中心의 思考에서 출발한 心身均衡的 치료의학이다⁸. 四象人의 각 體質이 다르고, 각 체질별 表裏病이 다르고, 표리병 마다 各病과 症이 다르고 그에 따른 藥材와 處方이 다르지만, 결국은 그 原因이 되는 性情의 偏急을 바로잡아 存其心 養其性 하고 修其身 立其命 하는 것이 치료의 최종 목표이다. 따라서 消渴症은 본인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本治가 된다고 思慮되며 少陽人은 暴哀深怒의 조절을 통한 體質管理를 하는 것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본다.

洋方에서 糖尿病진단을 받고, 전형적인 消穀善飢 善食而瘦 등의 中消症을 나타내는 少陽人 환자를 대상으로 忍冬藤地骨皮湯을 주 처방으로 치료 관리하여 Table 1과 같은 임상검사 결과를 얻었다 BST와 Glucose 및 HbA1c 모두 下降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U.Glucose 또한 ++++2000에서 +++1000으로 下降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향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임상검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상의 症例를 통해 少陽人 中消症 患者에 대한 經驗을 쌓고 忍冬藤地骨皮湯을 處方하여 臨床的 效驗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V. 參考文獻

1. 申載用. 糖尿病과 消渴. 成輔社, 서울, 1995:17, 168, 169.
2. 金完熙. 消渴에 응용되어 白虎湯이 Alloxan 糖尿에 미치는 영향. 韓醫生理學會誌. 1983;1(5).
3. 金應模. 韓醫學的으로 본 糖尿病의 概說 大韓韓醫學會誌. 1981;2(1).
4. 金泰英. 糖尿病의 症狀과 臨床管理. 韓方春秋. 1995;37.

5. 朴淳達. 糖尿病에 대하여. 慶北韓醫學會誌. 1974;19.
6. 강신대. 東醫寶鑑 消渴문에 수재된 처방들의 혈당강하 효과에 대한 초보적 檢索. 大韓韓醫學會誌. 1998;19(1):27-37.
7. 정성일. 糖尿病의 四象體質 유형에 따른 임상연구. 東義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8. 四象醫學.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集文堂, 서울 1997.
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出版, 서울, 1986.
10. 徐雄, 宋正模. 少陽人 新定 處方의 形成過程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1):213-243.
11. 이병국. 最新 耳鍼 圖解 處方集. 現代鍼灸院, 서울, 1996.
12. 회병일, 송일명. 少陽人 凉膈散火湯과 忍冬藤地骨皮湯 및 熟地黃苦蔘湯이 Alloxan 투여 高血糖 白鼠에 미치는 영향.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0(2):513-532.
13. 고기덕, 홍순용. 少陽人에 응용되는 忍冬藤地骨皮湯이 streptozotocin 투여 高血糖 白鼠에 미치는 영향. 사상체질의학회지. 1990;2(1): 149-166.
14. 서용배, 송정모. 少陽人 忍冬藤地骨皮湯이 中消合併症에 미치는 영향.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86-200.
15. 정성일, 이현민, 김종원. 少陽人 糖尿病 환자에 忍冬藤地骨皮湯을 투여한 證例.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138-146.
16. 危亦林. 世醫得效方. 中國醫學大系 14. 商務印書館, 1990:223-231.
17. 金亨泰. 圖解 東醫壽世保元. 정담, 서울, 1999.

K C I